

시·도체육회장 선거전 본격화...광주 2파전·전남 3파전

15일 선거 앞두고 후보등록 마감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 돌입
광주 박찬모 vs 전갑수 대결
전남 윤보선 vs 송진호 vs 장세일
선거인단 광주 429명·전남 354명

오는 15일 치러질 광주시와 전남도체육회장 선거전이 본격화됐다. 광주시·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5일 시·도체육회장 선거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광주시체육회장 후보로 박찬모(62·기호 1) 전 광주육상경기연맹 회장, 전갑수(62·기호 2) 전 광주시배구협회장이 등록했다. 전남체육회장 후보로는 윤보선(63·기호1) 전 전남도체육회 부회장, 송진호(59·기호2) 전 목포체육회장, 장세일(58·기호 3) 전 전남도의원이 등록

했다. 이들 후보는 6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시·도체육회장 선거는 대의원 간접선거로 치러지며 전남도체육회는 354명, 광주시체육회는 429명을 선거인단으로 확정했다. 광주는 4파전이 예상됐으나 2명이 최종 등록했다. 최갑렬 전 광주시체육회 부회장은 불출마 선언을 했고 홍성길 광주배드민턴 회장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박찬모 후보는 공약으로 광주종합실내체육관(스포츠펀드) 건립, 체육단체 전무이사 활동비 연차별 증대, 은퇴선수 체육지도자 전환 지원, 체육인재 장학기금 확보, 운동부 창단학교 장기적 지원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전갑수 후보는 각 종목단체 전무이사 처우 개선, 공공 체육시설 및 학교체육 시설 개방 확대 및 순회 사용제 추진, 구체육회 체육지도자 무기계약직 단계적 전환 추진, 학교-경기단체 연계 '광주형스포츠클럽' 확대와 리그전 개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전남은 3파전으로 선거 구도가 압축됐다.

광주시체육회장 후보 (기호 순)			전남도체육회장 후보 (기호 순)		
					
박찬모	전갑수		윤보선	송진호	장세일

윤보선 후보는 어르신과 유·청소년 스포츠 참여 확대, 1사1종목 후원을 통한 경기력 향상, 우수선수 타시도 유출방지를 위한 초·중·고·대 연계육성 방안, 동부권 체육영재교육기관 설립 등을 다짐했다.

송진호 후보는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한 체육진흥조례 개선, 전문체육 활성화를 통한 지역 출신 국가대표급 우수선수 확보, 시·군체육회 소통 강화·생활체육 교류 확대, 권역별 사무실 개설과 직원·지도자 처우 개선 등을 약속했다.

장세일 후보는 선진형 전남 스포츠 도시 추진, 체육회 안정적 재정확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스포츠 거버넌스 구축, 스포츠 복지 활성화 등 공약을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KIA 선수들 비시즌에도 바쁘네

각종 시상식·자선행사 분주...투수 김재열·코치 조승범 결혼도

김석환·김규성 등 호주리그 참가
비시즌에도 KIA 타이거즈 선수들은 바쁘다. KIA는 지난달 24일 제주도 마무리캠프단의 광주 북귀와 함께 올 시즌 공식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스프링캠프 전까지 KBO리그의 비활동기간이 지난 결혼식, 시상식, 자선 행사들로 겨울에도 선수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구단에 '경사'가 있었다. 3일 투수 김재열과 조승범 전력 분석 코치가 각각 부산과 광주에서 결혼식을 올리면서 선수단이 하객으로 자리를 했다. 1월에는 외야수 고종욱과 투수 남하준도 '새신랑'이 되면서 선수단은 결혼식장에서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 시상식 참가를 위해 서울을 오가는 선수들도 있다.

올 시즌 65.1이닝 13승 2패, 평균자책점 1.66을 기록한 윤영철은 제9회 최동원상 시상식, 2022 야마후 스타대상 그리고 은퇴선수의 날 시상식을 찾아 트로피를 수직했다. 3일 양천악야구재단이 개최한 제10회 희망더하기 자선야구대회를 위해 고척돔을 찾은 선수들도 있었다. '베스트 키스톤' 김선빈과 박찬호 그리고 외야수 이창진이 행사에 참가해 팬들과 함께 했다. 자선행사에서 SSG 박종훈의 투구품을 완벽하게 재현해 눈길을 끈 박찬호는 9일에는 KIA 선수 대표로 광주영아일시보호소를 찾아 사랑의 기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태진 폼을 따라 하려고 했는데 투수로 나간다고 했다. 앞에 박종훈 형이 보여서 따라했다"며 웃은 박찬호는 "행사도 참가하고, 챔피언스필드를 찾아 운동도 하면서 비시즌을 보내고 있다. 웨이트 많이 하고, 몸무게 불려서 타격에 힘을 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멀리 호주에서 실력을 키우고 있는 KIA 선수들도 있다. 외야수 김석환, 내야수 김규성 그리고 투수 최지민이 질롱코리아 유니폼을 입고 호주리그에 참가해 뜨거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지난달 17일 '도루왕'으로 2022 KBO 시상식에 참가했던 박찬호는 30일에는 김선빈과 함께 시상식장을 찾았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가 주최한 2022 마구마구 리얼클럽 시상식에서 '베스트 키스톤 콤비상' 수상자가 되면서 박찬호와 김선빈은 나란히 단상에 올랐다. 올 시즌 144경기 전 경기에 출장해 타율 0.320, 21홈런, 97타점, 출루율 0.402, 장타율 0.508 등을 기록한 나성범도 시상식을 통해 팬들에게 근황을 전했다. 그는 지난 2일 진행된 '2022 블루베리NFT' 한국프로야구 은퇴선수의 날' 시상식에서 최고의 타자상을 수상했다. 나성범은 오는 9일 예정된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도 외야 한 자리를 노리고 있다. 시상식 일정을 소화하느라 가장 바쁜 선수는 '2023신인' 투수 윤영철이다.



광주은행 테텐 양궁단이 지난 1일 광주여대 양궁장에서 훈련을 시작한 뒤 내년 시즌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김성은(왼쪽부터) 감독, 박나운, 김민서, 최미선.

광주은행 여자 양궁단 첫 동계훈련 돌입

김성은 감독 "내년 1회 이상 우승·AG 국가대표 배출 목표"

광주은행 여자 양궁단 ('Ten Ten' 양궁단)이 창단 첫 동계훈련에 돌입했다. 지난달 18일 공식 창단한 'Ten Ten' 양궁단이 지난 1일부터 광주여대 양궁장에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김성은 감독을 비롯해 최미선, 안산, 김민서, 박나운 등으로 팀을 꾸린 'Ten Ten' 양궁단은 국내는 물론 세계 무대 제패를 목표로 삼고 있다. 그 원동력은 탄탄한 팀워크와 지도력이다. 팀원들은 광주여대 출신 선·후배다. 김성은 초대감독은 기보배, 최미선, 안산 등 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를 길러낸 명장이다. 김 감독은 "내년 열리는 6개 공식대회 단체전에서 최소한 1회 이상 우승을 목표로 잡았다"며 "내년 3월에 예정된 2023 양궁국가대표 선발전에 집중하겠다. 향후 아시아게임에 나설 국가대표를 배출하는 것이 1차 목표"라고 설명했다. 김 감독은 목표 달성을 위해 체력과 정신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김 감독은 "6일 훈련, 1일 휴식 일정으로 오전 프리슈팅으로 전문기술을 쌓고, 오후에는 체력 훈련을 병행해 웨이트 트레이닝과 필라테스로 신체 좌우밸런스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도요일에는 오전산악훈련을 실시하고 월 1회 무등산을 등정하는 등 지구력 강화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경기 정신력 집중을 위해 주 2회 모든 조명을 끄고 과녁에 집중한 뒤 활을 쏘는 야간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심리적이고 과학적인 훈련도 병행한다. 선수들의 각오도 남다르다. 최미선은 "창단팀 주장이라는 책임감도 크지만 'Ten Ten' 양궁단의 이름을 걸고 '새로운 시작, 원대한 도전'을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선 내년 국가대표 3차 선발전에 집중, 태극마크를 달고 싶다"고 말했다. 김민서와 박나운은 "실업 새내기라는 패기로 'Ten Ten' 양궁단의 눈부신 활약의 주역이 되겠다. 최고의 팀이라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해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단기적인 목표와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팀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는 복안이다. 내년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이 광주여대를 졸업하고 팀에 합류하면 'Ten Ten' 양궁단은 완전체가 된다. 김 감독은 "선수들과 함께 광주은행의 명예를 걸고 광주시민들에게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며 "다양한 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과 상생, 지역민과 동행'이라는 광주은행 경영철학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팀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글·사진·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태클을 피해 뛰어 오르다
5일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 클라라 레비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NFL 경기에서 마이애미 폴백이 샌프란시스코 라인백커의 태클을 피해 뛰어넘고 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올빼미
- 2관 올빼미, 원피스 필름 레드
- 3관 데시벨
- 4관 압꾸정
- 5관 극장판 보로로와 친구들: 바이러스를 없애줘, 압꾸정
- 6관 올빼미
- 9관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 7관 씨네커틀 원피스 필름 레드, 동감, 본즈 앤 울, 헤이진니&럭키강이 비밀의 문
- 8관 씨네커틀 탄생,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제132회 정기연주회
송년음악회, 蓋世之才(개세지재)
일시 : 2022. 12. 15.(목) 19:30
장소 : 빛고을시민회관
문의 : 062-415-5403